

완도해양치유센터, 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력 UP

개관 2년만에 12만 명 방문...181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

'해양치유 콘텐츠 시대' 맞아 선도 지자체로 위상 제고

국내 최초 해양치유 전문 시설인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개관 2주년을 맞았다.

해양치유산업은 우리나라 해양 신 산업으로 2년 전만 해도 제도 연구 기반이 부족했지만 완도군은 선도 지자체로 투자 및 운영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지난 2023년 11월 해양치유센터는 개관 이후 운영 안정화 단계를 거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며 누적 이용객 12만 명을 기록했다.

개인·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건강관리를 위한 고령층과 장기 치유객, 기업 연수, 스포츠팀 재활 등 이용층이 다양하게 형성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치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

졌다.

군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해양치유산업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약 181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센터 이용객의 숙박, 음식, 특산물 소비 등에 따른 직접 유발 효과와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다른 간접 효과를 종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해양치유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최근 타 지자체와 경쟁에 직면하면서 '완도형 해양치유 모델'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해양치유 콘텐츠 시대'에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해양치유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공 치유 서비스로 발전시켜 차별화를 꾀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



완도해양치유센터 1층 탈라스폴 전경.

이다.

먼저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프로그램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건강 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도입해 해양치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인피니티 풀, 스포츠 재활 공

간 등 시설 고도화 ▲해양·산림·레저 융합형 콘텐츠 개발 ▲만성 질환자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 '해양치유 스테이' 운영 ▲다시마, 유자 등 지역 특산물 활용 테라피 제품 상용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장선우 기자



조명타워 설치 후 한층 밝아진 영암 삼호 용당교차로의 모습.

'안심 이동' 밤길 보행자·운전자 더 안전해졌다

영암군, 교차로 조명타워·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확대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밤길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위해 조도 개선 사업으로 도로 교차로 조명타워,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야간 조도를 높여 어두운 구간을 줄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

교차로 조명타워는 지난해 삼호읍 용당교차로 1기 설치를 시작으로 최근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입구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교차로에도 조명타워와 투광등 설치를 마쳤다.

영암군이 설치한 24m 높이의 교차로 조명타워는, 기존 가로등의 밝기 10~30lx보다 최대 20배인 212lx 높은 조도로 교차로 전체를 고르게 비춰준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밝기 덕분에 운전자의 시야가 크게 개선하는 동시에 비대칭형 투광등과 각도 조절 기능도 장착돼 눈부심과 주저지 빛 공해도 최소화했다.

영암군민들은 지역 주요 도로와 관광지를 잇는 교차로가 환해지면서 야간 이동이 더 안전해졌다는 평가다.

횡단보도 투광등은 지난해 18곳 설치에 이어 올해는 보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1곳에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영암군민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을 위해 앞으로도 조명을 밝히고 어두운 구간을 줄이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채용 목표 증가율 ▲집행액 목표 증가율 ▲재용인원 목표 달성도 ▲집행액 목표 달성도 ▲우수사례 추진 내용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 22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진도군은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

진도군, 지방정부 일자리사업 평가서 '우수상'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인정... 특별교부세 3000만 원 확보

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주변 도시의 일할 사람과 지역의 농가를 연결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기가 중요한 농사일을 제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해 농

가의 큰 효용을 얻었다.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은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총 2,663건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며, 기존 목표(2,000건)의 133퍼센트(%)를 달성했다.

특히, 내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영농 현

장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영농 활동이 적기에 진행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행정의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2026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무안군 온라인 쇼핑몰, 누적 매출 20억 돌파

'맛플무안몰' 전국 판로 확대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의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이 개장 1년 7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 4월 개장 1주년을 앞두고 누적 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이후 불과 7개월여 만에 두 배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짧은 기간 지속적인 판매 확대와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적 매출 20억 원 가운데 주요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쌀이 9억8,7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49.3%)을 차지했으며, 양파 4억6,600만 원(23.3%), 김·장어 등 수산물 1억7,800만 원(8.9%), 가공식품 순으로 집계됐다.

맛플무안몰은 개장 이후 누적 배송 횟수 6만 4,892회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고른 판매 실적을 보이며 지역별 배송 비중은 경기도가 27.08%로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 20.99%, 전라남도 9.05%, 인천광역시 6.11%, 광주광역시 4.68%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소비자 수요가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높은 주문 비중은 무안군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산지 직송에 대한 신뢰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평가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맛플무안몰이 누적 매출 20억 원을 달성한 것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무안군 농특산물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강화와 참여 업체·품목 확대, 물류 효율화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장성군 '제1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관내 생산자 단체·임업후계자 등 300여 명 참여

장성군임업인한마음대회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지난달 29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잔디 △뿔곰강 △두릅 △대추 △고로쇠 △북분자 △오디 △표고버섯 8개 임산물 생산자 단체를 비롯해 임업후계자, 산림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김한중 장성군수를 비롯해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전남도의원, 군의원, 유관단체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초청가수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대회는 개회식과 본 행사로 나뉘 열렸다. 먼저 개회식에선 임업 발전 유공 표창, 대회사, 축사, 산림현장 낭독 등이 진행됐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제기차기, 신발 양궁 등의 체육행사와 함께 품바 공연,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장 한편에서는 표고버섯 등 장성산 임산물 전시와 차 시음장도 운영되며, 행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한 해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주신 임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성군은 미래 임업 선도를 위해 임산물 상품화 지원, 유통 기반 조성, 작물 생산단지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강진군 장미농가, 스마트 LED로 이상기상 대응

식물생장 증대·에너지 효율 두 마리 토끼 잡는 효과

강진군이 올해 장미농가에 시범보급한 스마트 LED 보광기술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공모한 '2025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 작목 육성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 장미 재배 농가 8개소에 식물전용 LED 보광등을 시범 설치했다.

LED 보광등은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일조량이 부족할 때 장미의 생장점에 직접 빛을 공급해 생육을 촉진하고 품질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식물 재배 맞춤형 LED 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식물 생장에 가장 효율적인 빛의 파장별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져 기상에 관계없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장미 농업인들은 2024년 겨울 저일조로 인해 예년에 비해 햇빛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70% 내외로 급감하고 곰팡이 병 발생이 확대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보광등 사업은 단순히 보광등만 한 것이 아니라 센서에 의해 실시간 일조량을 감지해 광량이 부족한 시간대에 자동으로 LED 보광등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스마트 일사센서 기반 자동 제어 시스템'을 함께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작물 생육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중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장미를 대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미 직거래 포장 자동화, 접삼묘 육묘장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전국적인 전략작목 육성기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